

행정대상 박윤국 포천시장·의정대상 이병욱 포천시의원 수상

한국정책능력진흥원과 정책분석평가사협회사 공동 심사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일보 주관 제5회 행정·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병욱 시의원이 행정대상과 의정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민일보 행정·의정대상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일꾼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구청장, 시의원을 수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수상 선정 심사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과 정책분석평가사협회 공동으로 맡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김중길 원장은 행정대상에게 "단체장의 사업계획의 단기적 운영성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공적내용을 보면 경기대전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봉화골산업단지 등으로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해 균형발전과 자족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홍물로 방치된 폐차장소를 예술성 높은 국제적인 관광 휴양명소로 개발하여 포천아트밸리 조공공원을 조성하

고 있다. 또한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하는 등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것도 큰 호평을 받았다.

이병욱 시의원의 공적내용을 보면 1998년 7월 제3대 포천군의회 의원으로 등임하여 제4대 및 제1대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창의적으로 펼쳐왔으며,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폭넓은 대화를 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여론을 의정에 반영함을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

를 만들고자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다.

또한 포천시 소재 군부대 사격장(훈련장)으로 인한 피해가 지원대책을 위한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사격장 피해지역 주민의견 청취 및 현장방문, 사격실시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국방부와 미군 측에 제도적 보완요구 및 사격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국회의원 등 7개 기관에 송부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각 사격장별로 기본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행락철 청결운동 캠페인

바르게살기協, 산정호수 청결운동 실시



행락철을 맞아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회장 이병업)는 포천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친절과 질서, 청결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지난 28일 산정호수에서 영북권지역위원회(영북면, 영중면, 관인면)위원 5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행락철을 대상으로 "친절·질서·청결운동 생활화로 선진 문화시민이 됩시다"라는 단란지 2천매와 티뷰 1천매를 배부했다.

또 7월말경에는 포천권지역(포천동,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지역, 8월말경에는 소흘권지역(소흘읍, 선단동, 가산면, 내촌면), 9월경에는 일동권지역(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친절, 질서, 청결운동 합동캠페인(전단지과 티뷰배포)을 실시, 시민의식개척 추진으로 선진문화 시민의 긍지를 높이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명예농림부장관 초청 Workshop

한·미 FTA 타결 이후 포천농정 계획 발표



포천시는 한미FTA체결과 관련해 농업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각 지역별 대표적인 명예농림부장관 44명을 초청해 Workshop을 개최했다.

포천시와 명예농림부장관회(이하 명농회)가 공동 주관하고, 농림부가 후원하는 이번 Workshop은 6월 28일부터 2일간 포천 반월아트홀과 아도니스 호텔에서 진

행했다.

6월 28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는 포천시 농축산농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 농림부 장관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의 '한·미FTA 이후의 농업·농촌·농정 전망'과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황민영위원장의 '한·미FTA 타결과 우리의 과제', 그리고 한국농업경영포럼 성진근 이사장의 '시장개방시대, 한국농업의 비전과 과제' 등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의 특강을 통하여 FTA이후 우리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며, 이후 환영할 포천시 부시장이 '한·미FTA이후 포천농정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아도니스 호텔에서 포천시 농업인 단체장 150여명과 한·미

FTA관련 농림부 대책 실무를 담당하는 농림부 각 담당 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각 분과별 심도있는 발표 및 토의했다.

분과별 토론회는 명예농림부 장관 44명, 포천시 농업관련 단체장 8명, 포천시 의회의원 4명 등 총 56명이 각 분야별 농업구조정책분과, 경종농업분과, 농산물유통분과, 축산분과로 14명씩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날인 6월 29일에는 포천시 농업인 150여명 및 명예농림부장관회원과 함께 전날 토론한 자료와 Workshop 결과를 발표했고, 농림부 각 관계자가 참석하여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종합토론회를 갖고 Workshop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농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채택했다.

2일간 개최되는 Workshop을 통해 그동안 한·미 FTA타결이후 여러 농업관련기관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연구 및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도로명 중심 주소체계로 변경

지역마다 도로명칭 부여 건물 번호지정

포천시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오는 2007년 12월 31일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각 지역의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건축물마다 고유번호를 정한 다음 이것을 주소로 사용하는 국제사업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지번 주소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적법상의 토지지번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도시 및 사회의 급격한 발전 및 이로 인한 도시구조의 변화에 따라 빈번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불규칙하고 복잡하여 목적지를 찾아 가고자 할 경우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6년부터 연차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도로

마다 각 지역의 특장적인 명칭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 및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 호적,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주소표시와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주소가 전환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행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기 사용이 가능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만이 사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포천시청의 경우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58-2"으로 표기되던 병기사용을 할 경우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179(신읍동 58-2)"가 되며,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만 표기할 경우에는 "경기도 포

천시 중앙로 179"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포천시는 2005년 새주소 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 6월 현재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내촌면, 신북면, 포천동, 선단동 등 7개 읍면동지역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7년 12월 31일 포천시 전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완료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알려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도로명 주소(<http://www.juso.go.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포천시청 민원과(☎ 538-2639 이창운)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금제 시행

7월1일 시행 의료급여 재정 누수방지 차원

포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종 수급권자(저소득층) 본인 부담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신설되는 1종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병·의원제도를 말한다.

본인부담금제란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의료급여법시행령이 개정(07.2.28)되어 급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종수

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1차 의료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씩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이를 위해 1종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씩 외래이용시 부담하는 비용(건강생활유지비)이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로 지원된다.

수급권자는 이 가상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할 수 있으며 잔액이 없는 경우에 현금으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월 사용회비는 누적관리 되어 다음연도 1월 중에 생계급여 계좌로 이체된다. 회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신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며 따라서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중복투약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의 집중관리 및 약물사용에 예방을 위해 선택병의원제도가 도입된다(1.2종 모두 해당).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건부연장승인자로 관리되어 의무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며 상한일수 초과자가 아니라도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1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회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불필요한 의료급여 재정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사랑의 전통힐체어 기증식

파고다 라이온스클럽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게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파고다 라이온스 클럽에서는 포천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게 사랑의 전통힐체어를 기증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6월27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기증식에는 환영할 포천 부시장을 비롯해 류정열 파고다 라이온스클럽회장, 이금중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전통힐체어 수혜자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전통힐체어는 총 38명(7,942만원 상당)에게 전달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 파고다 라이온스클럽에서 20%를 지원했다. 또 정지명 (주)ENS대표이사는 장애인 단체 및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들을 위해 세달라며 운동복 68벌(596만원 상당)을 기증하기도 했다.



환영할 포천시 부시장은 류정열 파고다 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정지명 (주)ENS대표이사와 등 4명에게 포천시장을 대신해 감사패를 수여하며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따뜻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양장서 주신 라이온스클럽 회원에게 감사패 드린다"고 말하며 덧붙여 "장애우들이 전통힐체어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단풍잎 돼지풀 제거는 우리가 앞장

신북면자연보호협의회 단풍잎 제거 작업 나서

신북면 자연보호 협의회 (회장 박성환)는 6월29일 민·관 협조로 관내 관광지 유망한 신북온천관광 지구에 위치한 삼정초등학교 주변 3,000㎡에 걸쳐 서식중인 유해 외래 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제거 작업을 비가 오는 열악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4시간 여에 걸쳐 회원들과 함께 실시했다.

이번에 제거된 단풍잎 돼지풀은 국화와 1년생 식물로 꽃가루에 알레르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재채기, 콧물 등 증상을 유발하고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토종 식물 생태계에 위협을 주고 있어 1999년 생태계 유해식물로 지정된 식물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월부터 민·

관 협조로 신북면 내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단풍잎 돼지풀 서식지를 조사했던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신북면 자연보호 협의회 박성환 회장은 "삼정초등학교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좋은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신북온천지구 주변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신북면 자연보호협의회



는 민·관 협조 네트워크 형성 및 단풍잎 돼지풀의 인체 유해성 및 토종 식물 위협 등을 축산 농가와 관내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도우미로 앞장 설 예정이며, 관내의 단풍잎 돼지풀 집중 서식지 몇 곳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참살이(Well-being) 포천 선편식

시민 5만여명 서명받아 오는 7월9일 아트홀

포천시가 살기 좋은 포천시 조성을 위한 2007 참살이 포천 서명운동을 지난 4월 13일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포천 시민의 3분의 이상인 5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9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환영할 포천시 부시장 및 관계 단체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살이 선

포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9일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38개 단체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참살이는 복지다', '질서는 안녕이다', '안정은 행복이다'는 3대 과제를 정착하기 위한 참살이(Well-being) 포천 선편식을 갖기로 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6월29일 시행 옥외광고물 중개업자 표기해야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중개업자 성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포천시는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새로 개설등록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에 반드시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

데 중개업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성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하고 중개업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성명 각 글자의 세로 길이가 해당 옥외광고물의 세로 길이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자립·과학·협동 새농민 3대정신 실천

전국새농민회 경기도회 베어스타운에서 2007 연찬회



(사)전국새농민회 경기도회(회장 윤찬섭)는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포천시 내촌면에 소재한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윤국 포천시, 권역 협동 새농민 3대정신 실천을 주제로 2007년 경기새농민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농민들에게 우리 농촌사회를 선도하고 농업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 묵묵히 희생하고 봉사해 오신 값진 역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변화 없이 농촌의 선도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하였다.

또한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막대한세 보호주의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련과 도전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면서, 치열한 농업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발전상관 및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어 농산물 수입 개방의 파고가 높더라도 우리 새농민회 가족 여러분들이 선도 농업인으로서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과학영농인의 시대를 만들어감은 물론, 성공한 농장을 농업기술 현장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의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